

“**국민권익위 민원 빅데이터로 분석한**”

국민의 소리

국민권익위원회
2024년 6월 1주차 주간동향(6.3.~6.9.)

[2024.6.13.(목), 제770호]

이슈 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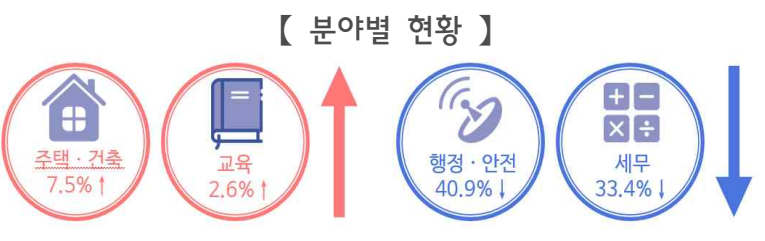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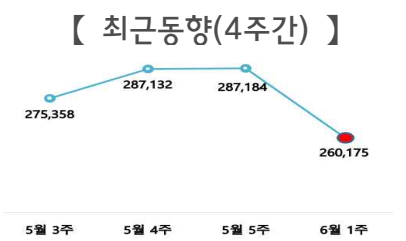
일반민원			온라인 여론		
순위	키워드	민원건수	순위	키워드	언급량
1	교통 단속 민원(불법주정차 신고 등)	111,742	1	오물풍선(北 대남 살포)	12,523
2	사전청약 당첨자(본청약 연기 불만)	8,595	2	동해 석유(석유·가스전 시추계획 발표)	10,528
3	버스차고지(〇〇시 버스공용차고지 반대)	2,432	3	산업부	6,850
4	불법광고물(전단지, 현수막 등 신고)	1,397	4	정상회의(한·아프리카 정상회의)	5,822
5	버스정류장 신설(△△시 □□지구)	1,081	5	종부세(세제개편 검토)	5,599
6	일조권 침해(데이터센터 건립반대)	715	6	군사합의(9.19 합의 효력 정지)	3,988
7	정화조 악취(◎◎시 ▽▽구 아파트)	686	7	소비자물가(5월 소비자 물가 2.7% 상승)	2,441
8	◇◇시 ☆☆지구(공사 소음 관련)	637	8	의료개혁	2,013
9	경기도 교육청(●●시 학군조정 철회 요구)	620	9	대남전단(오물풍선 대남 살포)	1,338
10	해충 방역요청(주변 지역 방역요청)	473	10	원전(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실무안)	1,139

※ 일반민원: 국민신문고, 지자체 별도 창구로 접수되어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 분석결과(6.3.~6.9.)
온라인 여론: 문체부 제공 자료(5.31.~6.5.)

※ 5월 5주차 대비 순위 신규진입 키워드: [] / 탈락 키워드: 해외직구, 재개발 등

민원 동향

- 6월 1주차 민원은 260,175건(일평균 37,168건)으로 지난주(287,184건) 대비 9.4% 감소 ※ 안전신문고(62.5%), 국민신문고(23.9%), 서울 등(13.6%)
- 지역별로는 지난주 대비 세종(5.3%), 전남(4.1%)은 증가한 반면, 서울(10.5%), 전북(10.3%) 등 감소
- 분야별로는 공공분양 사전청약 관련 민원 등 주택·건축 분야 증가, KC인증(해외직구) 관련 민원 등 행정·안전 분야 감소



주요 민원

□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확보 요청 (398건)

- **☞☞시 ●●초등학교** 통학로 일부 구간이 안전 사고 위험성이 있어 학부모들은 통학로에 안전시설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통학로 주변 상인들과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상황
 - 올해 3월 입주를 시작한 인근 아파트에서 해당 초등학교로 통학을 하면서 학생들 등학교시 안전문제가 지속 제기됨
- * 해당 아파트의 학군은 근거리 초등학교의 과대·과밀학급 문제로 인해, 1km거리의 ●●초에 배정, 작년 5월 학부모들은 배정 철회를 요구한 바 있음

- **검토요청** 저희 아파트에서 파장초등학교까지 통학로가 아파트 주변 정비구역을 제외하고 인도가 없기에 조합, 시청 및 구청과 협의하여 통학로 거주민들의 주차장 입구 구역을 제외하고 안전펜스를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통학로 주변 거주민분들의 민원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인도 없는 차도에 불법주차가 우선 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오늘도 파장초등학교에 다니는 수 많은 학생들은 인도 없고 불법주차로 다닐 곳 없는 위험한 차도로를 위험천만하게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3월 말 입주시작으로 4월 말까지 진행한다는 공사는 현재 5월 중순까지 이뤄지지 않지 않고 있습니다. **통학안전과 보행안전**을 위하여 불법을 방관하지 마시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6.9.)
- 저희 아파트는 파장초를 배정받았고 현재 많은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환경에서 등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 주민들의 반대로 안전 확보를 위한 볼라드 설치 등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등학교길, 유흥가 등 여러 이유로 초등학교 변경을 요구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안된다였고 그러기에 안전한 등학교길을 원했습니다. 허나 그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되나요? (6.7.)

【주요 언론 보도】

구분없는 보도인도...해결책 없어 발 동동

△ 이원근 기자 | © 승인 2024.06.07

초 통학로 안전 대책
학부모, 기관에 분리시설 설치를
상인들, 재산권 침해 이유로 반대



인천일보(24.6.6.)

통학로 위험한 '초등학교' 배정 받은 학부모 집단 반발

배정 부모들, 초 통학로 안전문제 용법 가능성 지적
교육지원청, "과밀학급 방지 위에선 불가피." 시와 대안 찾을 것

나규형 기자 epsho2288@kgnnews.co.kr

등록 2023.05.23 18:31:16



경기신문(23.5.23.)

□ △△시 □□지구 버스정류장 신설 요구 민원 [1,081건]

- '22년부터 입주가 시작된 △△시 □□지구 주민들이 해당 지역의 교통불편을 제기하며, 버스정류장 신설 등 대중교통 확충 요구

- 과거에는 버스정류장이 있었으나, 2018년 이후 □□지구 개발과 이용자 감소로 정류장이 폐쇄 되었습니다. □□지구는 2022년 하반기 이후부터 아파트 입주가 완료되어, 대규모 □□지구 거주민과 지식산업센터 업무시설 상주 인원(약 1만 5천여명) 등 약 2만5천명의 출퇴근과 타 지역 이동 수요가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버스노선 조차도 미비하여, 입주민 및 직장인 대부분이 자차 교통으로 서울로 진입하는 등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6.4.)
- □□지구는 △△시 도심과도 동떨어져 있고 서울시 와도 경계에 위치해 있기에 △△시에도 서울시에도 이도저도 제대로 끼지 못하는 택지지구가 되어 있습니다. 대중교통 확충이 시급함에도 입주 3년차가 되어가는데도 아직 제대로 된 대중교통수단이 주민들의 성토가 여러 커뮤니티를 통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원인의 요청은 □□지구 인근을 지나는 00번 버스의 노선을 조금만 수정하여 □□지구내를 경유할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셨으면 하여 글을 적습니다. (6.5.)

□ 신축 아파트 정화조 악취 해결 요청 [686건]

- ●●시 ♡♡아파트는 올해 3월 입주를 시작한 신축 아파트로 단지 내에 설치된 정화조를 통해 하수처리 하는 방식으로 설계
- 해당 정화조에서 악취가 발생하고 있어 건설사에서 일부 조치를 취했으나 해결되지 않고 있어 입주민들의 민원 다수 발생

-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된 정화조로 인해 입주민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문제의 원인은 하수처리의 과정 문제로 공공하수처리장으로 배관을 직관 연결하지 않고 단지 내에 설치된 정화조를 통해 하수처리를 진행하다 보니 냄새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별도의 제어 시스템 미비) 이는 정화조 관련 시설물의 시공 불량으로 악취로 추정됩니다. 세대 내로 악취가 유입될 뿐만 아니라, 승강기홀 및 지하 주차장 등 아파트 전반에 걸쳐 악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에 이와 관련하여 지난 몇 개월간 꾸준히 문제 해결을 요청했습니다. 임시방편으로 가조치(실리콘 등으로 땀방)를 받았으나 냄새의 경감에 조금의 효과는 있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못해 날씨의 변화에 따라 냄새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정화조 악취 건을 세밀하게 점검하여 시공사 및 시행사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등의 행정지도를 요청합니다. (6.9.)

알림판

1.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다량으로 증가하였거나 이슈가 된 민원과,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시의성 있는 민원을 발굴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 적극적인 조치 협조 등을 통해 사후관리되고 있습니다.

< 금주의 검토요청 사례 >

페이지	제목	민원번호	소관기관
2P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확보 요청	1AA-2406-0308519 1AA-2406-0386530	경기도교육청 / 경기도 수원시

- ※ 국민권익위원회는 집단민원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처리하기 위해 집단고충 조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기관이 관련되어 있거나 이해관계가 첨예하여 당사자 간 해결이 쉽지 않은 집단민원을 조정·중재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연락(044-200-7418, 7321) 바랍니다.

2. 민원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및 외부게시판·트위터 등을 검색하고 최신 지능정보기술(AI)을 적용하여 분석이 가능한 차세대 민원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기관 담당자, 민원빈발 부서의 사업 담당자 등은 이용 신청을 통해 분석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www.pias.go.kr(업무망)로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의 ‘사용자 계정신청 안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망은 방화벽 포트 허용 조치를 위해 Helpdesk(070-4108-3625)로 문의 요망